

3·1운동 산증인 104세 임엽스님

“유관순 열사와 만세 불러”



3·1 운동에 참여했던 독립투사로 생존자인 임엽(여·104·법명 유정) 스님은 당시 상황을 묻는 기자에게 “요즘 친구들은 나라 잃은 슬픔을 잘 모른다”며 타박부터 시작했다.

경기 양평군 용수사 주지스님인 임씨는 1919년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았던 유관순 열사와 함께 죽을 힘을 다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회고했다.

1903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임씨는 집성촌이 있는 천안에 머물던 중 역사적인 그 날의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임씨는 일본 경찰에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듬해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외묘가 닮은 독립군 첨자로 오인한 일본 현병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수도 살 무렵인 1920년대 중반 석방된 임씨는 귀국해 산사에서 헌양하던 중 불가에 귀의했다.

임씨는 요즘도 3·1 운동 당시 일본 현병에게 잡히거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다.

임씨는 올해 3·1절에는 서울에 올라가 젊은 사람들을 만날 생각이다. 한민족운동단체연합과 불교계 종대각사,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의 주관으로 열리는 ‘3·1문화대제전’에 참석해 젊은 친구들에게 1919년 당시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서다.

전남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원 훈·포장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은 지난달 2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2007년 2월말 정년퇴직 교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전수식에는 황조근정 훈장 51명 등 총 155명(초등 92명, 중등 63명)이 훈장 및 포장을 전수 받았다.

함평군, 독립유공자 유가족에 위문금



함평군은 제88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故 최강윤옹의 자녀 최혁(72·함평을 기각리)씨 등 8명을 찾아 지난달 27일 위문금을 전달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정원기씨 차남 지원군 김한석(광주 개별화물조합 이사장)씨 장녀 남주양=3월(토) 오후 1시30분 리더스클럽 웨딩홀 2층 컨벤션홀.

▲이홍제(전남도의원)씨 장남 병태군 흥대영(서광주세무서)씨 차녀 은희양=11월(일) 오후 1시40분 순천시 탑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호남해바리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 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현

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운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의=3일 오후 2시~5시 광주대 학교 도서관 5층, 음·양·택, 수·액, 나·경·지도상·명·장·묘법 등. 670-2161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동장·동문화 ■ 무료 상담=광주 사대부중 제 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4일(일) 오후 6시 미현

시 맷铠정. 226-2668

▲복성중 제 4회 동창회(회장 박두영) 월례회=4일(일) 낮 12시 만 나부페. 368-2323

▲승원고 총동문회 '장학기금 및 발전기금 후원의 밤'=5일(월) 오후 5시 레오네빌딩 지하 1층 월드컵. 011-212-2900

▲재광 전주 영생고 총동문회 모임=6일(화) 오후 6시30분 바다와 육지. 381-5233

▲복성중 제 6회 동창회(회장 강대식) 월례회=6일(화) 오후 6시30분 파레스호텔 2층. 222-2525

▲복성중 제 7회 동창회(회장 김권수) 월례회=7일(수) 오후 6시 금강산. 224-0808

▲동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임원회의=5일(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1회 강의. 문의 016-874-2992

▲광주대 평생교육원 신체교정 소격증방 모집=8일까지. 문의 670-2167

11시 조선의 땅. 362-7092

▲죽산박씨 총현공파 사직공 나주종친회(회장 박판식) 임시총회=11일(일) 오전 11시30분 하나가든식당. 061-337-8711

■ 모집 ■

▲(사)한국전례원 광주전남 지원 생활 예절 교육 수강생 모집=전통 예절·현대 예절 수강생 모집. 3일까

지. 문의 673-4455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소호 창업 IT과정 수강생 모집=자연계열·공대·농대·생활과학대

등 이공계 전문대 이상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인 미취업·비정규직 여성. 선착순 20명. 4월 28일까지 매주 토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1회 강의. 문의 060-7402

▲전남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약용식물 관리사 자격증 수강생 모집. 문의 016-874-2992

▲광주대 평생교육원 신체교정

강성덕 과장호 과흡수 김선희 김수진 김영미 김영호 김정문 나영종 남상훈 문영일 민동준 박무수 박정민 이백용 이성용 이시형 이재수 장행진 정완기 조경윤 조미진 주양규 최원호 최영주 최완숙 한동환 ▲서광주=고용임 구성본 권순일 김선진 김안철 김용주 김훈 남예숙 모우열 서근석 정정희 ▲여수=강효봉 박순웅 박선규 박희경 서행정 이정철 이한정 연심 조용대 최윤호

▲순천=김병로 나동수 나형봉 문현종 박진우 이승준 박현경 신동춘 엄호만 오현미

오형섭 이태식 정영환 장충길 정유수 정준경 최재재 최양석 홍상우 ▲목포=김재석

남궁화순 노정운 박인규 백광호 백현우 성태신 윤정우 이성복 이창연 임선이 정명근

조병철 조종필 ▲나주=권은현 김동원 김병국 김선희 박기범 박숙희 박원숙 배현옥

▲해남=공병국 김종일 김태완 김홍식 김후식 나한태 박인환 박남구 손정호 송하일

염삼열 이이익 우영만 이정미 이철웅 조호

형 한동석 홍순희 ▲순천=김현수 곽금섭

김근우 김동식 김수진 김영준 김원석 김일석 김종준 김진남 김학수 김형숙 류제형

문동용 박병환 박삼수 서옥기 이우영 이용

혁 체남기 최인광 하철수 홍수경 ▲여수=김강수 김경주 김상월 김혜경 유성주 민경숙 박귀숙 박영수 백기호 오용호 위석 이용화 전광현 정종진 지태호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장 겸 평생교육원장 송춘현 ▲교무처장 황윤경 ▲학생처장 한광래

▲대학발전연구원장 방기혁 ▲교육정보원장 강성률 ▲초등교육연구원장 정인수 ▲

초등교육연수원장 정환금 ▲산학협력단장 문병도 ▲학생생활연구원장 겸 신문방송 주간 오의수 ▲상록원장 김해경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선주원 ▲대학발전연구원부부장 노희정 ▲교육정보원부장 박광렬

▲초등교육연구원장 주대창

◆목포해양대

▲대학원장 및 해양산업대학원장 김우숙

▲해상운송시스템학부장 박성현 ▲

기관시스템공학부장 신상현 ▲해양전자통신공학부장 임장섭 ▲해양시스템공학

부장 이제희 ▲교양과정부장 강장희

43년 교직생활 마감 황조근정훈장 받은 전남여고 강정혜 교장

“정나는 교직생활 모교서 퇴임해 영광”



“들에 자란 농작물은 농부의 밭자리에 자라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 속에 자란다.”

43년 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지난달 28일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전남여고고등학교 강정혜(63·사진) 전 교장의 교육 철학이자 임연처럼 자주 되뇌었던 말이다.

강 전 교장은 “밤 12시 3학년 학생들이 하교할 때까지 저도 끝을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당시엔 교사를 불만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도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듯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마워해 했어요.”

“43년의 교직 생활, 그리고 명예로운 퇴임은 저와 함께 했던 모든 학생·교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권위를 세우기 보다 정(情)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 전 교장이 전남여고에 부임한 것은 지난 2004년, 공교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을 때였다. 강 전 교장은 모교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가 바뀌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바뀌어야 했고, 학교 관계자들이 바뀌어야 했기 때문이다.

“밤 12시 3학년 학생들이 하교할 때까지 저도 끝을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당시엔 교사를 불만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도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듯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마워해 했어요.”

1년 동안 교장이던 자신도 고3의 생활을 했더니 피로가 겹쳐 감상선 수술을 해야 했다. 교장의 진심이 통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성적도 좋아졌다.

동문의 입장에서 강 전 교장이 놓칠 수 없었던 것은 전남여고의 외적 발전이다. 올해로 개교 80년을 맞는 전남여고를 전통에 걸맞는 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교정을 숲 수준으로 녹지화하는데 앞장섰다. 역사관과 과학관도 개·보수했다.

강 전 교장은 “광주 여학생의 학생운동 역사 자료 등 역사관에 들어 올라가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써놓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전통에 걸맞는 학교로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며 “이제 교장이 아닌 동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건강을 챙기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가정에 더 충실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

시진=나명주기자 mjna@

고창현 前조대총장 光·全발전협 회장에

고창현 전 조선대 총장은 지난 달 28일 광주시 허드크 관광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고 회장은 조선대 총장·한국 민사법학회장·한국토지법학회장·한국국제문화교류협의회장·일본와세다대 초빙강사 등을 지냈다.



전남대 총동창회 28대 회장에 김국웅씨

김국웅 우리로광통신 회장이 전남대 총동창회 제2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남대 총동창회는 지난달 27일 전남대 총동창회관 대강당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법대 58학번’인 김 회장을 신임 총동창회장으로 선출했다.



오재일 전대 교수 ‘